



‘내우외환’ 롯데, 난감하네

창립 50주년 뜻 깊은 해, 안팎으로 난제 폭식으로 버려온 중국 시장...마트 매장

면세점, 인천공항과 임대료 두고 신경전 알짜 매장, 민자역사 국가귀속에 놓칠 위기



내우외환(內憂外患), ‘내부에서 일어나는 근심과 외부로부터 받는 근심’이라는 뜻이다. 요즘 롯데그룹이 놓인 상황을 가장 적절히 표현해주는 사자성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보복으로 오랫동안 공들여 온 중국 시장에서 물러나게 됐고, 국내에서는 알짜매점 점포 두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사드 갈등 장기화 국면에 결국 중국시장서 철수

그동안 롯데마트는 업계의 술한 소문과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 버텼다. 3월 3600억원의 운영자금을 긴급수혈한 데 이어 최근 홍콩 롯데쇼핑 홀딩스가 중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3억 달러(약 3400억원)를 추가 조달하는 등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고 물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핵실험 도발로 인해 사



중국 롯데마트 매장(왼쪽)과 롯데백화점 서울 영등포점 외부 전경.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시장 고수를 밝힌 롯데는 최근 롯데마트 중국매장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유통분야의 대표적인 알짜 매장인 롯데백화점 서울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도 올해 말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 만료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드 4기 추가 배치 등 해결 기미는 커녕 오히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결국 매각으로 결단을 내렸다. 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중국 매장 처분에 들어갔다. 이미 글로벌 기업과 협상이 시작돼 인수가격 등 구체적인 이야기도 오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의 불똥은 그룹의 효자 노릇을 하던 면세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롯데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 문제를 둘러싼 합계투기가 한창이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자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낮춰달라는 변경안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면세점을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롯데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업체에 관계없이 약 4조100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매출 악화로 올해만 2000억원 이상, 계약기간 5년 동안 누적 적자가 최소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하느니 차라리 3000억원 정도인 철수 위약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점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민자역사 진출 알짜 점포도 올해 말로 폐점 위기

그러나 하면 국내에서는 정부의 민자역사 국

가귀속 방침으로 알짜매점 점포 2개를 상실할 위기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원칙을 재천명했다. 다만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년 임시 사용허가 방침을 밝혔다.

이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사실상 문을 닫는 것이나 다름없어 롯데로서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임시 사용기간 이후 운영방안이나 사업자 선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결국 임시 사용기간이 폐점을 위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곳 모두 롯데로서는 놓치기 어려운 알짜매장이다. 1991년부터 운영 중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다. 또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외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로 알려져 있다. 롯데 측은 “당장 혼란은 피하게 됐지만 1~2년 뒤가 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외연도 좋지 않은데 국내 정책도 롯데에게 계속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올해가 창립 5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잇따른 악재가 계속되면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9일

코스피지수	2416.05	↓	-2.16
코스닥지수	674.48	↓	-1.39
日 낮케이 지수	2만299.38	↑	+389.88
중 상하이 종합	3356.85	↓	-6.0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78	↑	+0.04
환율 (원·달러)	1131.20	↑	+2.7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7630.37	↑	+19.43

오늘의 얼굴

경찰청으로 간 조양호 한진회장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화사돈으로 자택 공사비용을 충당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19일 경찰청에 출석했다. 재벌 총수가 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2007년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복폭행 사건 연루 이후 10년만이다. 조양호 회장은 오전 10시께 서울 미군동 경찰청 본청에 나타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표명을 하고 특수수사와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중 30억원 가량을 당시 대한항공이 짓던 인천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충당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비즈 TALK TALK

▼“IT시장 주도주는 불변, 이 주식을 안되면 시장 사이를 끝났다고 봐야한다.”(이경수 메리츠증권증권 센터장,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스피 증시 끌어올린 주도주인 IT에 대한 확신을 밝히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고령화 사회로 인해 안전과 의료 분야에서 제품 수요가 늘고 있다.”(아미 라보아 한국쓰리엠 사장, 창립 40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업계 평균 성장률의 2배 이상 성장을 이루겠다고)

▼“금융의 디지털화는 조직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다”(신한은행 관계자, 최근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장현기 박사를 신한은행의 디지털 전략을 총괄하고 6대 주요 램프의 수장인 디지털전략 본부장으로 선임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데이터 경제

국내의 글로벌 기업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순위

미국 보스턴에 본부를 둔 컨설팅 업체 레퍼테이션 인스티튜트(RI)가 최근 발표한 ‘2017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보다 69 계단이나 하락한 89위에 올랐다. ‘글로벌 CSR 순위’는 올해 15개국에서 실시한 17만여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9.8점으로 20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4.5점을 받아 89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한편 올해 전 세계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장 잘 구현한 기업으로는 덴마크의 완구업체인 레고 그룹이 꼽혔다.

순위	기업명
1	레고 그룹
2	마이크로소프트
3	구글
4	윌트디즈니 컴퍼니
5	BMW 그룹
6	인텔
7	로버트 보쉬
8	시스코 시스템즈
9	플스로이스 에어스페이스
10	클레이트-팜올리브
...	...
76	LG
89	삼성
92	현대자동차

강력한 퍼포먼스에 연비까지 만족! The New Q50

그릴, 라이트 등 스포티한 이미지 강화 실내 감성품질 높이고 세가지 트림 출시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으로 입소문난 인피니티 Q50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고, 실내 감성품질은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정식 명칭은 The New Q50 BLUE SPORT(이하 뉴Q50). 뉴 Q50은 인피니티 Q50S하이브리드의 후속 모델로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364 마력(하이브리드 시스템 통합 최고 출력)의 강력한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모델 특유의 정숙성과 효율성(복합연비 12.0km/l, 고속도로 13.4km/l, 도심 11.0km/l)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뉴 Q50은 스포츠카에 버금가는 364마력의 강력한 퍼포먼스와 하이브리드 모델 특유의 정숙성과 효율성을 갖춘 모델로 인기가 높다. 신형 모델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실내 감성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사진제공 | 인피니티코리아

스포츠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밝기가 향상된 헤드라이트와 강렬한 인상의 테일라

이트를 적용했다. 인피니티 디자인의 상징과 같은 더블아치 그릴은 사이즈를 키워 존재감

을 더했고, 하부그릴과 함께 다이아몬드 형상을 구현해 차체가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냈다. 새 디자인의 휠과 후면부 범퍼의 투톤 컬러도 스포티한 감성을 극대화 해주는 요소들이다.

실내는 프리미엄 느낌의 실버 컬러 엠비언트 라이트(프로액티브 트림)와 웰컴 라이트, 계기판 조명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에는 실버스티치 등을 적용해 전체적으로 고급감을 높였다. 또한 계기판의 디자인은 더 심플해지고, 스티어링 휠은 더 작고 스포티하게 만들었다.

뉴 Q50은 에센셜(Essential, 4690만원), 센서리(Sensor, 5790만원), 프로액티브(ProActive, 6290만원) 세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VAT포함). 가장 판매량이 많은 센서리와 프로액티브 트림의 가격은 동결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신한카드-LG전자 맞손 “따뜻한 금융 실천”

신한카드가 LG전자와 손잡고 서울 노원구 노원1종합복지관에 459번째 ‘아름인 도서관’을 개관했다. LG그룹 창립 70주년과 신한카드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3~7월 전국 LG전자 베스트샵에서 고객이 사용한 마이신한포인트 10% 상당액을 양사가 기부금으로 적립해 이번 사업을 공동 지원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LG전자와 함께 아름인 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게 됐다”며 “지역 사회와 기업, 기업과 기업간 상생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아름인 도서관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최상규 LG전자 사장, 이정숙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왼쪽부터)이 아름인 도서관 헌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한카드

콘돔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국내 상륙

안셀의 콘돔 브랜드 ‘라이프스타일’(사진)이 국내 상륙했다. 라이프스타일은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메가 브랜드다. 얇은 두께에 치중하는 아시아 콘돔 시장의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얇은 두께는 물론 특화된 부드러움을 적용한 특수 콘돔으로 유명하다. 센서티브, 제로, 스킨-오리지널, 스킨-엘리트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스킨 시리즈의 경우, 특허를 받은 신소재(폴리이소프린) 제품으로 피부 밀착감과 뛰어난 착용감이 특징이다.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신형E&T 김승현 대



표는 “향후 대형마트, 편의점, H&B(헬스·뷰티)숍으로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적극적 마케팅 및 캠페인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변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롯데칠성음료, NCSI 음료부문 5년 연속 1위 롯데칠성음료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7 NCSI(국가고객만족도) 1위 기업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음료부문 단독 1위 기업에 선정돼 인증패를 받는다. 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모델로, 국내에서 제품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총 73개 산업, 3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지수다. 이번 조사에서 롯데칠성음료는 세부 항목인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고객충성도 및 고객유지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5년 연속으로 음료부문 단독 1위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 추석맞이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맞아 25일부터 29일까지 ‘추석맞이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하던 무상점검 서비스를 확대해 전국 모든 직영 서비스센터(22개)와 블루핸즈 영업소(1372개)에서 진행돼 더 많은 고객이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원성열 기자

편진 | 신한카드 기자